칼 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평화와 사랑의 한반도를 바란다

새해 새날이 동터왔다. 저마다 다짐과 설레임 속에 맞이한 새해 새날이다. 새로움은 알 수 없기에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지나간 과거와는 다른 시간과 삶을 기대할 수 있기에 새로움을 좋아한다.

현실은 언제나 녹록치 않은 것이 우리네 삶이다. 서민들의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힘들다. 서민들의 현실은 언제나 팍팍하고 각박하다. 꿈의 성취에는 많은 좌절과 상처가 따른다.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개띠 해, 무술년(戊戌年)이다.

개는 원래 야성의 이리, 여우였으나, 인간이 기르고 친해져서 반려견(伴侶犬)이 되었다. 사람이나 자기 주인을 물어 죽이는 맹견(猛犬)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는 충직(忠直)과 순종의 동물이다.

2018년 새해에도 헤쳐나가야 할 국가적인 문제는 산적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미·일과 중·러 사이, 남·북 사이에서 막힌 것을 뚫고, 없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싸고 미·중, 한·미, 한·중 간에 밀고 당기는 갈등과 긴장의 줄다리기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 같다. 사드의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3불(不) 정책은 정당하고 적절한 외교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기울어져서는 안되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우방·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당사자는 우리나라라는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통치하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 선언한 원칙이다.

나는 '7·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지금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옳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수출 5739억 달러, 수입 4781억 달러로 세계 5위 무역 규모 1조 시대를 열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자원도 많지 않은 작은 나라, 남북으로 두 동강 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분단국가, 좌다 우다 하면서 동쪽과 서쪽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나라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창출한 것이다. 통일이 되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우리의 조국은 참으로 놀라운 선진 민주 강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통일이 되고 나면 얻게 되는 통일의 편익(便益)이 훨씬 크고 많다는 것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왜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묻어둔 채, 북한을 핵과 미사일만 쏘아대는 호전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보면 안된다. 60년대·70년대 '무찌르자 공산당' 식의 반공교육 같은 정책으로는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통일 기피증과 북한 적대감만 키워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역주행(逆走行)할 뿐이다.

새해에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몸으로 체감(?感)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 소수 계층만이 더욱 잘 살게 되는 소득 격차와 부(富)의 편중이 더욱 커지고 심화되어서는 안된다.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선각자들의 지적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타당하다.

언제나 '국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정치권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과 분열 등의 정계개편이 진행 중이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대변혁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과반(過半)을 주지 않아서 '소통과 협치'라는 태생적 숙명을 안겨 주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은 개헌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동치고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수천년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헤쳐왔기에 지혜와 힘을 갖추고 있다. 올해도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도, 힘들고 팍팍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내고 이겨내고 성취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을 굳게 믿는다.

社 說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해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었던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정보공개 총괄 기구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확대된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올라간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와 관련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사, 개선권고권을 가지게 된다.

또, 중앙, 지자체 등 기관에 설치하게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개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적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성하게 된다.

개정법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기관이 청구된 정보공개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경우 현재의 과정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청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의무는 기존 중앙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과 지방공단·공사로 확대된다.

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회 위원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정보공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확대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鈞	고를	균
巧	공교할	교
任	맡길	임
釣	낚을	조

鈞 巧 任 釣

▷뜻: 위국(衛國) 마균(馬鈞)은 지남거(指南車)를 만들고, 전국시대(戰國時代) 임공자(任公子)는 낚시를 만들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천할 때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출동지령과 동시에 차량탑승과 차고탈출이 이루어지지만 막상 도로에 나와 보면 꽉 막힌 차량에 갇힌 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화재 시에 출동하는 소방차,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등 긴급 출동 알리는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119신고와 동시에 신속하게 신고자가 원하는 필요한 위치로 출동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방차 도착시간은 인명 및 재산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화재의 패턴과 화재사건 분석 결과를 보면 화재는 초기화재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할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거의 없지만 10분을 넘기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발생하여,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동 중에 있는 소방대원의 마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다.

소방기본법 제5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양보를 해주어야 할지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다.

긴급차량의 양보방법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며,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을 하거나 일시정지 하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하면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을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비켜주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곳이 우리 집이라면, 구급차량이 우리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태연하게 긴급차량을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의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의 외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벌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피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천할 때이다.

장범래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장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 집 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 고 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